

2009년 07월 16일 (목) 13:59 [뉴스시스](#)

## 제주문화예술재단 방만 운영...도감사위 22건 지적·5명 문책 요구

【제주=뉴스시스】

제주문화예술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.

[제주특별자치도](#) 감사위원회는 올 상반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, 총 22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문책과 71만7000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.

감사결과 문화예술재단은 2010년까지 300억원 조성 목표인 재단육성기금 조성업무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.

또 '임직원의 퇴직기금'을 운용·관리하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평일 정상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,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.

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다 해임된 자를 부적정하게 문화재 발굴 조사 인부사역으로 채용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되는 등 직원 임용업무 처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.

이 밖에 여행 세부목적 및 결과물 없이 국외여행 추진,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소홀,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업무보조자 사역단가 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, 주의 조치받았다.

김용덕기자 [kydjt6309@newsis.com](mailto:kydjt6309@newsis.com)

<저작권자©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스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